

한국의 산림 분야별 평가와 이에 기초한 산림 공적개발원조 발전 방안

유병일* · 윤보은

국립산림과학원 산림경제경영과

A Strategy for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in Forest Sector based on Evaluation by Field in Korea

Byoung Il Yoo* and Bo Eun Yoon

Division of Forest Economics and Management, Korea Forest Research Institute, Seoul 130-712, Korea

요약: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산림부문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이해관계자 집단을 대상으로 한국 임업발전에 기여한 분야와 분야별 국제경쟁력에 대한 평가를 통해 우리나라 산림부문 공적개발원조 현주소를 파악하고 향후 우선 중점분야에 대한 인식 조사를 통해 한국 산림ODA의 확산 및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일반인과 전문가 24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결과분석을 위해 교차분석의 카이검정, 독립표본 t-검정, 일원배치분산분석과 Duncan 사후검정을 실시하여 집단 간 인식차이를 비교하였다. 조사결과 한국 산림 및 임업발전 기여도와 산림ODA 사업 시 국제경쟁력에 대해 조사대상자 전체적으로 ‘산림보존 및 산림황폐지 복구’ 영역을 가장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전문가 집단 중 ODA 전문가 집단은 ‘산림정책 및 제도·연구 역량강화’ 영역의 국제경쟁력을 산림전문가 집단에 비해 높이 평가하는 특징을 보였다. 그리고 한국 산림 ODA 우선 중점분야에 대하여 일반인은 ‘탄소배출권 관리’와 ‘산림 중 다양성 보전’을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나 산림황폐지 복구 등과 같은 기존의 단위사업을 선호하는 전문가 집단과는 큰 인식차이를 보였다. 결론적으로 효과적인 산림ODA 실행을 위해서는 과거 한국의 산림복구녹화경험을 기초로 하고 국제사회에서 새롭게 요구하는 기후변화대응, 생물다양성 보전 등의 신 분야에 대처할 수 있는 산림역량강화 프로그램 개발과 함께 이해집단 간 인식차이를 완화시키기 위한 노력이 우선될 필요가 있다. 이는 향후 북한 산림 복구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raw policy implications for the development and expansion of Korea's forest ODA through investigating the perceptions of stakeholder on the fields that contributed the development of forestry in Korea and would have competitiveness in developing countries and priority fields for Korea's forest ODA. For this, the survey was conducted for 248 subjects from the general and expert stakeholder groups. Chi-square test in cross analysis, independent sample t-test, ANOVA and Duncan test were conducted to compare the difference of perceptions by group. The whole general and expert groups consider that 'forest conservation and rehabilitation' contributed to the development of Korea's forestry most and consider its global competitiveness most high. Comparing expert groups, ODA experts evaluated the competitiveness of 'capacity building for policies, institutions and research' higher than the forestry experts. For priority fields of Korea's forest ODA, general groups perceived 'management of CERs' and 'conservation of biodiversity' most important, showing the clear difference in perception compared to that of experts. In Conclusion, for the effective forest ODA of Korea, the effort to fill the gap between the general and expert groups needs to be made, as well as developing forestry capacity building programs to cope with the fields such as climate change adaptation and biodiversity conservation, which is newly required in a global society, in addition to using the past experience of forest rehabilitation in Korea. It will be useful for the rehabilitation of North Korea's forest in the future.

Key words: forestry,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competitiveness, priority fields, perception of stakeholder, North Korea

*Corresponding author
E-mail: yoobi4951@korea.kr

서론

우리나라는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단기간에 경제발전과 산림녹화에 성공하였다. 1960년대부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통해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었고 1973년부터 시행된 치산녹화계획을 시작으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산림복구에 성공한 유일한 개발도상국이 되었다(Yoo, 2014b). 2009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 2010년 G20 정상회의를 개최하여 서울 개발컨센서스 도출, 2011년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 개최 등 국제사회 개발협력 논의에서도 한국은 과거에 비하여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 사회에서의 한국의 위상변화에 따라 공적개발원조 사업에 대한 국·내외 요구도 다양화되고 있어 이를 선진화할 필요가 있다(OECD, 2012). 그동안 산림분야 공적개발원조 사업에서도 2000년대에 들어 한국국제협력단(KOICA)을 중심으로 개발도상국 현장 중심의 협력 사업이 다양하게 추진되어 왔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한국의 발전경험을 정리하여 공유하는 사업(KSP, Knowledge Sharing Program)을 추진해오고 있으며, 산림 분야에서는 산림 황폐지 복구를 위한 치산녹화사업과 임산소득 향상을 위한 임산자원개발 사업이 정리·분석된 바 있다(Lee, 2013; Yoo, 2014b).

공적개발원조(ODA)는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과 복지증진을 주목적으로 개도국 및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재원을 의미한다. 개발원조 분야 중에서도 산림부문은 새천년 개발목표(MDGs) 중에서 산촌지역 혹은 산림과 임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개도국 주민의 ‘빈곤퇴치’(MDG-1), 지속가능한 산림경영(SFM) 등을 통한 ‘지속가능한 환경보전’(MDG-7)이라는 목표 수행에 매우 중요한 분야이다. 또한 국제사회는 1992년 리우회의를 통해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 생물다양성협약(UNCBD), 사막화방지협약(UNCCD)에 합의하였는데, 이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지속적인 산림 관리를 근간으로 하고 있으며, 산림ODA 역

시 선진공여국을 중심으로 동 분야의 문제해결을 염두에 두고 추진되고 있다.

산림부문 공적개발원조 선진 공여국인 일본의 경우 주민 참여형 자연자원의 지속적 이용, 생물다양성 보전, 지속적인 산림경영을 산림부문 개발원조 전략으로 하여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으며 주민의 참여와 생계향상에 중점을 두어 참여형 자원관리,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기술협력 및 연구역량 강화 프로젝트,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CDM, REDD+사업, 산림유역관리, 농촌지역 혼농임업을 통한 주민 생계향상 프로젝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산림 ODA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산림ODA 사업 내용을 보면 단순 임업기술협력 뿐만 아니라 수원국의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젝트에 중점을 두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JICA, 2010; Yoo, 2014a).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한국의 산림녹화 경험을 기초로 약 20여 개의 산림ODA 사업을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환경부, 산림청이 추진하여 왔다. 대부분의 사업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주관하였는데, 특히 양자협력은 KOICA, 국제기구를 통한 다자협력은 환경부와 산림청이 주로 담당하는 경향을 보여 왔다. 그동안 한국이 지원한 대표적인 국제기구는 FAO, ASEAN 이 있고, 양자협력대상국은 6개국에 달하였다. 21세기 이후 지난 15년 간 이루어진 한국의 산림부문 공적개발원조 현황을 보면 산림 황폐지 녹화·조림 그리고 사막화방지 조림사업이 50% 이상을 점유하고 있고 소규모, 단기간의 기술전수 협력 사업이 대부분이다. 사업대상국은 인도네시아에 30% 이상의 사업이 집중되어 있는 등 아시아 지역에 대부분이 집중되어있고 ODA 사업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산림사업비 역시 증가하고 있으나, 신규 사업 수요 증가는 정체 상태에 있어 한국의 산림ODA 확산과 발전을 위한 선진화 방안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다(Table 1).

공적개발원조에 대해서는 그 목적(Alesina and Dollar, 2000; Ball and Johnson, 1996; Maizels and Nissanke,

Table 1. Number of Korea's Forest ODA Projects by Country and Field (2000-2012).

(Unit : Number of Projects)

Classification	Forestation of devastated land (including forestation to combat desertification)	CDM, REDD+	Biomass (including pellet)	Conservation of Environment	General (etc.)	Total
ASEAN	-	-	-	-	2	2
FAO	-	1	-	-	-	1
Myanmar	3	-	-	-	-	3
Indonesia	3	1	1	1	2	8
China	4	-	-	-	-	4
Tunisia	1	-	-	-	-	1
Mongolia	2	-	-	-	-	2
Philippines	-	-	1	-	-	1
Total	13	2	2	1	4	22

1984; Lumsdaine, 1993)과 효과성(Rajan et al., 2008; Moyo, 2009; Chong and Gradstein, 2008)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해외 선진공여국의 개발원조 집행체계와 특징에 관한 연구(Moon, 2013; Chang and Jeong, 2008)등과 함께 ODA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MOFAT, 2008; 2010; Kwon et al., 2011; 2012; 2013)와 교사와 NGO등 특정집단의 개발원조에 대한 인식연구(Kim et al., 2012; Han and Park, 2013)가 이루어진바 있다. 산림 분야에서는 세계 산림자원의 변화 및 주요 국가 국제산림협력사업의 특징과 한국의 국제산림협력과의 비교(Yoo, 2005), 산림부문 원조를 중심으로 한 주요 공여국의 사막화 방지 원조 현황분석(Jung, 2010) 등 주요국의 산림ODA 정책과 사업 분석에 기초하거나, 한국 ODA 사업을 원조 목적별·수원국 별로 분류·검토(Yoon et al., 2013), 농업분야와 산림분야의 공적개발원조 공동사업 수행 가능방안 검토(Heo et al., 2013)에 기초하여 한국 국제산림협력의 발전 방안을 모색한 연구가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으나 산림ODA 이해관계자 인식 분석에 기초한 산림분야 공적개발원조 발전방안 연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산림ODA 이해관계자 집단을 대상으로 한국 임업발전에 기여한 산림 분야와 개도국에서의 적용가능성, 즉 분야별 국제경쟁력 평가를 통해 산림ODA 현주소를 파악하고, 우선 중점분야 비교를 통해 한국 산림ODA의 발전을 위한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는 우리나라 산림부문 ODA전략 수립 및 분야별 사업발굴과 사업설계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사대상 및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임업분야 경쟁력 및 향후 ODA 주력분야에 대한 인식차이를 일반인 집단과 산림 및 ODA 전문가 집단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으며, 집단 내 소집단 간의 인식 차이도 함께 비교하여 보다 세분화된 발전 방안 도출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일반인은 산림분야 공적개발원조 정책과의 관련성이 높으며 원조 분야별 전문성 심

화와 사회적 참여 등의 차원에서 개발원조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참여 확대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정책적 노력이 요구되는 대상 집단이라고 볼 수 있는 개발협력전공학생, 산림전공학생, 산림경영인, 산림공직자 174명을 선정하였다. 전문가 집단으로는 산림ODA 정책 결정 및 시행 과정에서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부 원조시행기관의 ODA 사업실무자 및 정부 부처, 연구기관 등의 산림분야 전문가 74명을 선정하여 총 24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자료는 2013년 4월부터 8월까지 관계기관을 방문하여 설문조사 직접 실시 혹은 우편 및 이메일을 통해 설문지를 회수하는 방법을 통하여 수집하였다. 설문지 문항은 한국개발원이 2012년 ODA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를 위해 구성한 문항을 참고하고 조사대상자의 산림분야 ODA에 대한 인식차이 비교를 위해 한국임업발전에 기여한 분야, 임업 분야별 국제경쟁력 및 향후 우선 중점분야, 산림ODA 확산 방안에 대한 문항을 추가하여 작성하였다. 설문응답에 대한 결과 분석 통계처리는 SPSS 12.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설문조사 응답에 대하여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를 실시하였고 조사대상자의 집단 간 인식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교차분석의 카이검정과 독립표본 t-검정, 일원배치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일원배치분산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항목에 대하여는 Duncan 사후검정을 실시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총 248명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은 남자가 66.5%, 여자가 33.5%인 것으로 조사되었고 연령은 20-29세가 33.5%, 30-39세가 18.1%, 40-49세가 17.7%, 50-59세가 22.6%, 60세 이상이 8.0%인 것으로 조사되었다(Table 2).

2. 한국 산림녹화 성공요인

과거 한국의 산림황폐기 복구시절부터 최근까지 산림 및 임업발전에 기여한 분야를 기타를 제외하고 11개로 중

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and Type of Group.

(Unit : Number of Subjects)

Characteristics	Variables	N(%)	Categorization	Variables	N(%)
Age (years)	20-29	83 (33.5)	General Stakeholder Group	Forestry Majors	48 (27.6)
	30-39	45 (18.1)		Development Majors	53 (30.4)
	40-49	44 (17.7)		Forest Owners	40 (23.0)
	50-59	56 (22.6)		Forest Admin Officials	33 (19.0)
	60-and above	20 (8.0)			
Gender	Male	165 (66.5)	Expert Stakeholder Group	ODA Experts	25 (33.8)
	Female	83 (33.5)		Forestry Experts	49 (66.2)

분류하여 다중응답(1인당 3개)을 허용하여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자 전체적으로 한국의 산림녹화에는 산림황폐지 복구와 양묘, 조림 등의 분야가 가장 많이 기여하였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인의 경우 ‘산림보존 및 산림황폐지 복구’ 사업이라는 응답이 23.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 ‘산림정책 및 제도·연구 역량강화’(14.9%) ‘임목육종·종자개량 및 양묘·조림’(14.5%) 순으로 나타났다. 전문가의 경우 ‘산림보존 및 산림 황폐지 복구’ 사업이 30.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 ‘임목육종·종자개량 및 양묘·조림’(20.5%), ‘산림(자원, 토양)조사 및 모니터링’과 ‘산림정책 및 제도·연구 역량 강화’(각 15.5%) 순으로 나타났다.

일반인의 경우 한국 산림, 임업발전에 기여한 분야에 대하여 모든 집단에서 ‘산림보존 및 산림황폐지 복구’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일반인 집단 내에서는 개발협력 전공학생의 경우 ‘산림정책 및 제도·연구 역량강화’, 나머지 집단에서는 ‘임목육종·종자개량 및 양묘·조림’이라는 응답이 그 다음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전문가 집단에서도 ‘산림보존 및 산림황폐지 복구’에 대한 응답이 가장 높았으며 집단 내에서는 ODA 전문가의 경우

‘산림정책 및 제도·연구 역량강화’, ‘임목육종·종자개량 및 양묘·조림’이 2, 3순위로, 산림전문가는 ‘임목육종·종자개량 및 양묘·조림’이 2순위, ‘산림(자원, 토양)조사 및 모니터링’이 3순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개발협력 전공학생과 ODA 전문가 집단은 ‘산림정책 및 제도·연구 역량강화’의 기여도를 높게 인식하여 기술과 함께 정책 부분을 중시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와 함께 일반인 집단 내 산림경영인 소집단은 산림정책, 산촌개발, 임산업 등 현장 중심형 분야에 대한 기여도를 중시하는 경향도 있었다(Table 3).

3. 한국 임업 분야별 국제경쟁력

앞에서 구분한 중분류 내용 중 기타 항목을 제외하고 한국의 임업을 11개 분야로 구분하여 분야별 국제경쟁력에 대한 인식을 5점 척도 문항으로 조사하였다. 그 결과 모든 문항에서 전문가 집단의 평가가 일반인보다 더 높게 긍정적으로 조사되었고, 9개 분야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인은 ‘산림보존 및 산림황폐지 복구’(3.81점), ‘임목육종·종자개량 및 양묘·조림’(3.52점), ‘산림화재 예방 및 관리’(3.32점) 순으로, 전문가는 ‘산림

Table 3. Fields that Contributed the Development of Korea's Forestry by Group.

[Unit: N(%)]

Classification	General				Sub Total(%) <Rank>	Expert		Sub Total(%) <Rank>	Total(%) <Rank>
	Development Majors	Forestry Majors	Forest Owners	Forest Admin Officials		ODA Experts	Forestry Experts		
Capacity Building for Policies, Institutions & Research	28(17.6) <2>	19(13.3) <3>	13(12.0) <3>	16(16.2) <3>	76(14.9) <2>	15(23.8) <2>	16(11.7) <4>	31(15.5) <3>	107(15.1) <3>
Forest Survey (Inventory, Soil) & Monitoring	21(13.2) <3>	8(5.6)	1(0.9)	5(5.1)	35(6.9) <5>	4(6.3)	27(19.7) <3>	31(15.5) <3>	66(9.3) <4>
Conservation of Biodiversity in Forests & Management	20(12.6) <4>	6(4.2)	9(8.3)	4(4.0)	39(7.7) <4>	5(7.9) <4>	3(2.2)	8(4.0) <6>	47(6.6) <5>
Forest Tree Breeding · Seed Improvement & Cultivation · Afforestation	14(8.8)	22(15.4) <2>	15(13.9) <2>	23(23.2) <2>	74(14.5) <3>	12(19.0) <3>	29(21.2) <2>	41(20.5) <2>	115(16.2) <2>
Forest Conservation and Rehabilitation of Devastated Forest	29(18.2) <1>	43(30.1) <1>	17(15.7) <1>	30(30.3) <1>	119(23.4) <1>	18(28.6) <1>	42(30.7) <1>	60(30.0) <1>	179(25.2) <1>
Prevention & Management of Forest Fires	13(8.2)	6(4.2)	7(6.5)	7(7.1) <4>	33(6.5) <7>	3(4.8)	7(5.1) <5>	10(5.0) <5>	43(6.1) <6>
Establishment of Model Forest & Management	8(5.0)	11(7.7)	7(6.5)	3(3.0)	29(5.7) <8>	0(0.0)	2(1.5)	2(1.0) <9>	31(4.4) <8>
Forest Watershed Management (including Agroforestry)	7(4.4)	3(2.1)	3(2.8)	5(5.1)	18(3.5) <11>	5(7.9) <4>	2(1.5)	7(3.5) <7>	25(3.5) <11>
Capacity Building for Forest Village Development & Community Forestry	8(5.0)	11(7.7)	11(10.2) <4>	5(5.1)	35(6.9) <5>	1(1.6)	6(4.4)	7(3.5) <7>	42(5.9) <7>
Management of Carbon Emission Rights (CERs)	9(5.7)	5(3.5)	11(10.2) <4>	0(0.0)	25(4.9) <9>	0(0.0)	1(0.7)	1(0.5) <11>	26(3.7) <9>
Capacity Building for Timber Use & Forest Industry	2(1.3)	7(4.9)	13(12.0)	1(1.0)	23(4.5) <10>	0(0.0)	2(1.5)	2(1.0) <9>	25(3.5) <10>
Others	0(0.0)	2(1.4)	1(0.9)	0(0.0)	3(0.6) <12>	0(0.0)	0(0.0)	0(0.0) <12>	3(0.4) <12>
	159(100)	143(100)	108(100)	99(100)	509(100)	63(100)	137(100)	200(100)	709(100)

Note: 3 multiple responses

Table 4. Evaluation of the Competitiveness of Korea's Forest Technology.

Rank	Classification	Total (M)	General (M)	Expert (M)	t-value
1	Forest Conservation and Rehabilitation of Devastated Forest	3.99	3.81	4.40	-5.055***
2	Forest Tree Breeding · Seed Improvement & Cultivation · Afforestation	3.66	3.52	3.99	-4.116***
3	Prevention & Management of Forest Fires	3.44	3.32	3.73	-3.292*
4	Forest Survey (Inventory, Soil) & Monitoring	3.34	3.17	3.73	-5.331***
5	Capacity Building for Policies, Institutions & Research	3.33	3.27	3.49	-2.044*
6	Establishment of Model Forest & Management	3.07	3.04	3.13	-.774
7	Conservation of Biodiversity in Forests & Management	3.06	2.94	3.35	-3.508*
8	Forest Watershed Management (including Agroforestry)	3.00	2.93	3.16	-1.951
9	Capacity Building for Forest Village Development & Community Forestry	2.96	2.88	3.14	-2.105*
10	Capacity Building for Timber Use & Forest Industry	2.90	2.82	3.10	-2.331*
11	Management of Carbon Emission Rights (CERs)	2.79	2.70	3.0	-2.571*

*p<.05, **p<.001, (-: A negative(-) t-value indicates a reversal in the directionality.)

보존 및 산림황폐지 복구'(4.40점), '임목육종·종자개량 및 양묘·조림'(3.99점), '산림화재 예방 및 관리'와 '산림조사 및 모니터링'(각 3.73점) 순으로 국제경쟁력을 높게 평가하였다. 반면에 일반인과 전문가 집단 모두 '탄소배출권 관리', '목재이용 및 임산업 역량강화', '산촌지역개발·사회임업 역량강화' 부분에서는 경쟁력을 낮게 평가하였다(Table 4).

일반인 집단 간에는 7개 항목에서 유의한 인식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산림조사 및 모니터링' 항목에서는 개발협력전공학생과 산림공직자의 평가가 각 3.32점, 3.39점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산림경영인 집단은 2.84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임목육종·종자개량 및 양묘·조림' 사업은 산림공직자 3.79점, 산림경영인이 3.22점으로 두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음 '산림보존 및 산림황폐지 복구' 영역은 산림전공학생과 산림공직자가 각각 4.17점, 4.15점으로 가장 경쟁력 있는 영역으로 인식한 반면 산림경영인은 3.44점으로 매우 낮게 평가하였다. '산림유역 종합관리(혼농임업 포함)' 영역은 개발협력전공학생이 3.3점으로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 하였으나, 실제 임업 관련 학생과 실무 공직자는 경쟁력을 낮게 평가하여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탄소배출권 관리' 사업은 산림전공학생과 개발협력 전공학생이 각 2.94점, 2.77점으로 높게 평가한 반면, 산림경영인 집단이 2.32점으로 가장 낮게 평가한 것으로 나타나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특히 사후 검정결과 산림경영인은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7개 항목에서 모두 낮은 평가를 하고 있어 우리나라 산림분야 기술경쟁력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 집단 내 인식 차이를 보면 '산림정책 및 제도·연구 역량강화' 영역과 '산림유역 종합관리(혼농임업 포함)' 영역에 대하여 ODA 전문가가 산림전문가 보다 더 경쟁력 있는 영역으로 평가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고 이들 분야가

선진 ODA국가의 주력 분야이기에 한국임업도 이에 대한 대비책과 실질 경쟁력 제고 방안이 시급히 마련될 필요가 있다(Table 5).

4. 한국 산림ODA 우선 중점분야 선호도

앞의 조사 인식 내용을 기초로 향후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한 한국의 산림ODA 우선 중점분야에 대해 다중응답(1인 3분야)을 허용하여 조사한 결과 한국이 산림ODA 확산을 위해 주력해야 할 분야로 일반인은 '탄소배출권 관리'(15.5%), '산림 종 다양성 보전 및 관리'(14.1%), '산림보존 및 산림황폐지 복구'(12.7%) 순으로 응답한 반면, 전문가 집단은 '산림보존 및 산림황폐지 복구'(16.4%), '산림정책 및 제도·연구 역량강화'(14.2%), '임목육종·종자개량 및 양묘·조림'(11.4%) 순으로 응답하였다.

일반인 집단 내 소집단에서는 개발협력 전공학생과 산림전공학생 집단에서 '탄소배출권 관리'와 '산림 종 다양성 보전 및 관리'에 대한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산림경영인의 기대감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산림공직자 집단은 우선중점분야로 '산림보존 및 산림황폐지 복구'에 가장 높은 응답을 보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최근 학생과 산림경영인을 중심으로 리우회의 이후 국제적으로 협약이 체결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배출권 관리와 생물종 다양성 보전에 대한 높은 기대감과 정부의 국제협약 관련 국제행사 국내개최 등이 다양하게 반영된 결과로 보이는 반면, 산림공직자의 경우는 현실을 우선한 결과로 해석된다. 그러나 앞서 분야별 경쟁력 조사 결과와 같이 해당 우선중점분야에 대한 국제경쟁력은 지극히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 분야별 경쟁력 강화 등을 통해 산림ODA 사업의 다양화를 위한 방안 모색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 집단 전체적으로는 '산림정책 및 제도·연구 역량강화'를 '산림보존 및 황폐지 복구' 다음으로 두 번째로 중요한 분야로 선정하고 있어 전문가는 산림ODA 사업 시

Table 5. Evaluation of the Competitiveness of Korea's Forest Technology by Group

Classification	General	M (SD)	F-value	Expert	M (SD)	t-value
Capacity Building for Policies, Institutions & Research	Development Majors	3.42 (.770)	2.128	ODA Experts Forestry Experts	3.83(.637) 3.32(.755)	2.855**
	Forestry Majors	3.29 (.713)				
	Forest Owners	3.00 (.771)				
	Forest Admin Officials	3.30 (.918)				
Forest Survey (Inventory, Soil) & Monitoring	Development Majors	3.32 (.779) ^b	4.493**	ODA Experts Forestry Experts	3.54(.509) 3.83(.816)	-1.577
	Forestry Majors	3.13 (.640) ^{a,b}				
	Forest Owners	2.84 (.638) ^a				
	Forest Admin Officials	3.39 (.827) ^b				
Conservation of Biodiversity in Forests & Management	Development Majors	3.11 (1.031)	1.069	ODA Experts Forestry Experts	3.17(.717) 3.44(.649)	-1.548
	Forestry Majors	2.85 (.714)				
	Forest Owners	2.82 (.997)				
	Forest Admin Officials	2.94 (.669)				
Forest Tree Breeding · Seed Improvement & Cultivation · Afforestation	Development Majors	3.53 (.799) ^{a,b}	2.950*	ODA Experts Forestry Experts	3.96(.638) 4.00(.752)	-.238
	Forestry Majors	3.56 (.796) ^{a,b}				
	Forest Owners	3.22 (.947) ^a				
	Forest Admin Officials	3.79 (.696) ^b				
Forest Conservation and Rehabilitation of Devastated Forest	Development Majors	3.54 (.803) ^a	8.733***	ODA Experts Forestry Experts	4.25(.608) 4.48(.618)	-1.490
	Forestry Majors	4.17 (.834) ^b				
	Forest Owners	3.44 (.940) ^a				
	Forest Admin Officials	4.15 (.870) ^b				
Prevention & Management of Forest Fires	Development Majors	3.44 (.826) ^{a,b}	2.977*	ODA Experts Forestry Experts	3.43(.590) 3.88(.815)	-2.312*
	Forestry Majors	3.10 (.928) ^a				
	Forest Owners	3.13 (.991) ^a				
	Forest Admin Officials	3.64 (.994) ^b				
Establishment of Model Forest & Management	Development Majors	3.15 (.770) ^b	2.922*	ODA Experts Forestry Experts	3.30(.635) 3.04(.665)	1.559
	Forestry Majors	3.13 (.841) ^b				
	Forest Owners	2.68 (.852) ^a				
	Forest Admin Officials	3.15 (.972) ^b				
Forest Watershed Management (including Agroforestry)	Development Majors	3.30 (.668) ^b	7.991***	ODA Experts Forestry Experts	3.61(.722) 2.93(.929)	3.046**
	Forestry Majors	2.94 (.727) ^a				
	Forest Owners	2.61 (.718) ^a				
	Forest Admin Officials	2.70 (.883) ^a				
Capacity Building for Forest Village Development & Community Forestry	Development Majors	3.15 (.849)	2.575	ODA Experts Forestry Experts	3.35(.647) 3.04(.779)	1.623
	Forestry Majors	2.79 (.898)				
	Forest Owners	2.63 (1.051)				
	Forest Admin Officials	2.85 (.939)				
Management of Carbon Emission Rights (CERs)	Development Majors	2.77 (.824) ^b	4.119**	ODA Experts Forestry Experts	2.87(.757) 3.06(.763)	-1.003
	Forestry Majors	2.94 (.932) ^b				
	Forest Owners	2.32 (.747) ^a				
	Forest Admin Officials	2.67 (.692) ^{a,b}				
Capacity Building for Timber Use & Forest Industry	Development Majors	2.88 (.878)	1.562	ODA Experts Forestry Experts	3.14(.560) 3.09(.717)	.295
	Forestry Majors	2.90 (.928)				
	Forest Owners	2.55 (.891)				
	Forest Admin Officials	2.94 (.827)				

*p<.05, **p<.01, ***p<.001, Duncan(a<b)

단순기술이전 뿐 만 아니라 수원국의 정책 및 제도, 연구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우선 중점분야로 ODA 전문가는 ‘산림정책 및 제도 · 연구 역량강화’에 대한 응답이 20.8%로 가장 높았고, 산림전문가는 ‘산림보존 및 산림황폐지 복구’에 17.0%로 가장 높은 응답을 보여 전문가 집단 내에서도 우선순위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산림전문가 중 사업PM의 개별면접조사에서 담당사업 내용과 상

관없이 산림유역개발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점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이견은 향후 산림ODA 사업의 선발과 추진, 대상국가 선정 등에서 전문가 내에서도 갈등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에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Table 6).

5. 한국 산림ODA 확산 방안

한국 산림ODA 확산을 위해 강화되어야 할 내용을 흥

Table 6. Priority Forestry Fields for Korea's Forest ODA by Group.

[Unit: N(%)]

Classification	General				Sub Total(%) <Rank>	Expert		Sub Total(%) <Rank>	Total (%) <Rank>
	Development Majors	Forestry Majors	Forest Owners	Forest Admin Officials		ODA Experts	Forestry Experts		
Capacity Building for Policies, Institutions & Research	21(13.5) <4>	12(8.3)	10(9.0) <5>	15(15.2) <2>	58(11.4) <4>	15(20.8) <1>	16(10.9) <3>	31(14.2) <2>	89(12.2) <4>
Forest Survey (Inventory, Soil) & Monitoring	11(7.1)	8(5.6)	4(3.6)	3(3.0)	26(5.1) <9>	5(6.9)	17(11.6) <2>	22(10.0) <4>	48(6.6) <9>
Conservation of Biodiversity in Forests & Management	26(16.7) <1>	25(17.4) <1>	14(12.6) <3>	7(7.1)	72(14.1) <2>	12(16.7) <2>	7(4.8)	19(8.7) <7>	91(12.5) <3>
Forest Tree Breeding · Seed Improvement & Cultivation · Afforestation	7(4.5)	13(9.0)	15(13.5) <2>	5(5.1)	40(7.8) <7>	9(12.5) <4>	16(10.9) <3>	25(11.4) <3>	65(8.9) <5>
Forest Conservation and Rehabilitation of Devastated Forest	22(14.1) <3>	18(12.5) <3>	4(3.6)	21(21.2) <1>	65(12.7) <3>	11(15.3) <3>	25(17.0) <1>	36(16.4) <1>	101(13.9) <1>
Prevention & Management of Forest Fires	14(9.0)	4(2.8)	4(3.6)	3(3.0)	25(4.9) <10>	1(1.4)	3(2.0)	4(1.8) <11>	29(4.0) <11>
Establishment of Model Forest & Management	14(9.0)	14(9.7)	9(8.1)	9(9.1)	46(9.0) <5>	2(2.8)	12(8.2)	14(6.4) <9>	60(8.2) <6>
Forest Watershed Management (including Agroforestry)	5(3.2)	2(1.4)	5(4.5)	10(10.1) <4>	22(4.3) <11>	5(6.9)	12(8.2)	17(7.8) <8>	39(5.3) <10>
Capacity Building for Forest Village Development & Community Forestry	7(4.5)	8(5.6)	12(10.8) <4>	7(7.1)	34(6.6) <8>	5(6.9)	15(10.2) <6>	20(9.1) <5>	54(7.4) <7>
Management of Carbon Emission Rights (CERs)	25(16.0) <2>	25(17.4) <1>	18(16.2) <1>	11(11.1) <3>	79(15.5) <1>	4(5.6)	16(10.9) <3>	20(9.1) <5>	99(13.6) <2>
Capacity Building for Timber Use & Forest Industry	4(2.6)	14(9.7)	15(13.5) <2>	8(8.1)	41(8.0) <6>	3(4.2)	8(5.4)	11(5.0) <10>	52(7.1) <8>
Others	0(0.0)	1(0.7)	1(0.9)	0(0.0)	2(0.4) <12>	0(0.0)	0(0.0)	0(0.0) <12>	2(0.3) <12>
Total	156(100)	144(100)	111(100)	99(100)	510(100)	72(100)	147(100)	219(100)	729(100)

*Note: 3 multiple responses

Table 7. Part that needs Improvement for the Expansion of Korea's Forest ODA by Group.

[Unit: N(%)]

Classification	General				Sub Total	Expert		Sub Total
	Development Majors	Forestry Majors	Forest Owners	Forest Admin Officials		ODA Experts	Forestry Experts	
Strengthening Education for Students on International Forest Cooperation	1(1.9)	18(37.5)	7(17.5)	2(6.3)	28(16.2)	2(8.0)	5(10.2)	7(9.5)
Strengthening Education for Forestry Experts on Forest ODA	5(9.4)	1(2.1)	6(15.0)	2(6.3)	14(8.1)	1(4.0)	3(6.1)	4(5.4)
Expansion of the Budget for Forest ODA & Project Development by Forestry Field	16(30.2)	14(29.2)	13(32.5)	20(62.5)	63(36.4)	12(48.0)	29(59.2)	41(55.4)
Selection of Eligible Forest ODA Experts	9(17.0)	3(6.3)	3(7.5)	3(9.4)	18(10.4)	7(28.0)	8(16.3)	15(20.3)
Promoting Companies Specialized in Implementing ODA Projects	14(26.4)	3(6.3)	7(17.5)	4(12.5)	28(16.2)	3(12.0)	4(8.2)	7(9.5)
Raising People's Awareness on Forest ODA	8(15.1)	9(18.8)	4(10.0)	1(3.1)	22(12.7)	-	-	0(0)
χ^2		48.498***			173(100)	1.967		74(100)

***p<.001

보, 예산확충, 전문가 선발 강화, 교육 등 6종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일반인의 경우 '산림ODA 사업예산 확충 및 분야별 사업과제 발굴'이 36.4%로 가장 높았고 전문가도 동 항목에 대해 55.4%의 가장 높은 응답을 보였다. 현재 한국 산림ODA는 산림복구경험과 기술이전 사업이 단

위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단순 복구 차원을 넘어선 다양한 산림사업 수행과 사업대상국가를 확대하는 등 산림ODA 확산을 위해서는 예산 확충과 분야별 사업과제 발굴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집단 내에서도 일반인의 경우 산림공직자의 '산림ODA 사업예산 확충 및 분야별 사

업과제 발굴'에 대한 응답이 62.5%로 다른 집단보다 높게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문가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집단 간 인식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Table 7).

결론

본 연구에서는 산림분야와 개발협력 분야의 이해관계자 중 일반인 174명(4소집단)과 전문가 74명(2소집단)을 대상으로 한국임업발전에 기여한 분야와 분야별 국제경쟁력 및 향후 한국 산림ODA 우선 중점분야에 대한 집단 간 인식 차이를 비교 조사하여 한국 산림ODA 확산 및 발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 조사 결과로부터 도출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인과 전문가 모두 한국 산림 및 임업발전에는 '산림황폐지 복구 및 양묘, 조림' 분야가 가장 크게 기여하였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개발협력전공학생과 ODA 전문가는 '산림정책 및 제도·연구 역량강화'에 대하여 임업 관계 집단에 비해 기여도를 높이 평가하는 특징을 보였다. 또한 한국 임업의 분야별 국제경쟁력에 대해서도 일반인 집단 중 산림전공학생과 산림공직자가 '산림보존 및 황폐지 복구'의 경쟁력을 다른 집단 보다 높이 평가한 반면, 일반인 집단에서는 개발협력전공학생 집단이, 전문가 중에서는 ODA 전문가 집단이 '산림정책 및 제도·연구 역량강화' 영역과 '산림유역 종합관리'의 국제경쟁력을 다른 집단보다 높게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두 분야는 선진공여국의 주력 산림 ODA 분야이자 산림의 종합적 관리 능력이 필요한 분야이기에 동 분야에 대한 실질경쟁력 제고와 한국의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ODA 전문가 집단을 중심으로 '산림정책 및 제도·연구 역량강화' 분야가 '산림 보존 및 황폐지 복구' 다음으로 개발도상국 산림 개발원조 우선 중점분야로 거론되고 있어 향후 산림ODA 확산 발전을 위해서는 해당분야와 연계된 사업 발굴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한국 임업을 11개 분야로 나누어 산림ODA 사업 시 국제경쟁력에 대해 5점 척도 문항으로 평가한 결과 모든 문항에서 전문가 집단의 평가가 일반인 집단 보다 더 높게 긍정적인 것으로 조사되었고, 9개 분야에서 양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후검정결과 산림경영인 집단은 일반인 집단사이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7개 분야 모두에 대하여 국제경쟁력이 낮다고 평가를 하였는데, 향후 해당 소집단을 대상으로 국내 임업기술의 전문성과 경쟁력에 대한 신뢰도 제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산림경영자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기술과 경험을 해외 개발도상국에 ODA 사

업으로 확산하는 데는 여러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산림ODA 사업의 국제경쟁력에 대한 분야별 평가 점수 순위를 보면 일반인과 전문가 모두 '산림보존 및 황폐지 복구', '임목육종·종자개량 및 양묘·조림' 순으로 높은 점수를 주어 한국의 성공적인 산림복구 경험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양 집단 모두 '탄소배출권 관리'분야의 국제 경쟁력에 대해서는 가장 낮은 평가를 하였다.

셋째, 한국 산림ODA 우선 중점분야에 대해서는 일반인 집단에서는 '탄소배출권 관리'와 '산림 종 다양성 보전'이 1, 2 순위로 나타났으며 전문가 집단에서는 '산림보존 및 황폐지 복구'와 '산림정책 및 제도·연구 역량강화'가 1, 2 순위로 나타나 일반인과 전문가 간 향후 산림ODA 우선 중점분야에 대한 인식 차이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특히, 일반인 중 학생집단과 산림경영인 사이에 탄소배출권 관리와 산림 종 다양성 보전 분야에 대한 기대감이 높게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앞서 결과와 같이 동 분야의 국제경쟁력은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고 있어 해당 분야 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책 역시 시급히 마련될 필요가 있다.

넷째, 한국 산림ODA 확산 및 효과성 증진을 위해서는 일반인과 전문가 집단 모두 사업예산 확충과 분야별 사업 발굴이 가장 중요하다는 데에 공통의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한국 산림ODA 사업은 분야별로는 황폐산림 복구 및 조림, 원조목적별로는 빈곤극복보다 환경보전 등에 집중되어 있지만, 산림ODA 사업의 지속적 확대를 위해서는 예산 확대 뿐 만 아니라 산림ODA 중점분야 다양화 등을 통한 새로운 사업 발굴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산림ODA 사업 역시 개발도상국의 요청에 따라 사업이 선정되는 방식이기에 한국 산림기술의 장점과 원조사업을 통한 개도국에의 발전 기여 방안을 적극 홍보하여 사업요청 국가가 많아 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한국 임업계에서 우선 강구되어야만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실행중인 산림ODA 사업 내 연수사업의 일환으로 개도국 산림관계자를 초청 연수하는 프로그램과는 별도로 산림청이나 산림교육원, KOICA 등에서 직접 별도 예산을 확보하여 중점협력대상국 26개국을 중심으로 개발도상국가의 산림관계자를 초청 연수시키는 방안도 필요하다. 초청연수 시 한국 산림의 발전경험과 기술 제도에 대한 홍보와 함께 개도국 역량강화를 통해 산림취약부분을 진단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산림ODA 사업을 발굴하여 한국에 적극적으로 요청하도록 하는 교육이 함께 이루어지면 보다 많은 국가에서 다양한 분야의 산림ODA 사업이 발굴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결론적으로 향후 한국의 산림분야 공적개발원조 확산을 위해서는 과거 한국의 산림복구녹화경험을 기초로 하

고 국제사회에서 새롭게 요구되는 기후변화대응, 생물다양성 보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신사업 분야에 대처할 수 있는 국내 산림기술 역량강화와 함께 이해집단 간 인식차이를 완화시키기 위한 노력이 우선될 필요가 있다. 또한 최근 한국의 ODA 추세가 분야별 역량강화사업을 강화하는 추세이지만, 산림분야는 아직 산림역량강화 기본 모델과 프로그램이 개발이 안 된 상태이므로 시급히 개발이 이루어져야만 효과적인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조사대상이 개발원조 및 산림분야의 이해관계자 중 학생, 산림경영인, 산림공직자 등 일반인과 산림 및 ODA 전문가 집단으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향후 기업, 국제기구, NGO와 함께 개발도상국 이해관계자 등을 포함하는 인식분석 연구를 통해 국제산림협력 확산을 위한 포괄적인 개발협력 체계 구축 방안을 지속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연구를 통하여 한국의 산림ODA 확산 및 효과성 제고를 위한 정책 마련에 보다 의미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며, 북한의 황폐산림복구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References

- Alesina, A. and Dollar, D. 2000. Who gives foreign aid to Whom and Why?. *Journal of Economic Growth* 5(1): 33-63.
- Ball, R. and Johnson, C. 1996. Political, economic and humanitarian motivations for PL 480 Food aid: Evidence from Africa. *Economic Development and Cultural Change* 44(April): 515-547.
- Chang, J.H. and Jeong, B.K. 2008. A Comparative study on two models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Based on the ODA of Germany and Japan. *The Korean Journal of Area Studies* 26(3): 311-339.
- Chong, A. and Gradstein, M. 2008. What determines foreign aid? The donor's perspective. *Journal of Development Economics* 87: 1-13.
- Heo, J. Jung, S.E., and Yoo, B.I. 2013. The policy and strategy of agriculture ODA and cooperation between agriculture and forestry. *KREI C* 2013-18.
- JICA, 2010. Achieving Poverty Alleviation through Biodiversity Conservation.
- Kim, Y.H., Kim, S.Y., and Jeong, J.E. 2012. Investigation of teacher's perception about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and development education. *Teacher Education Research* 51(3) December: 423-439.
- Kwon, Y., Park, S.K., and Lee, J.Y. 2011. Trends in Korean public opinion about foreign aid. ODA Policy 11-02,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KIEP).
- Kwon, Y. Lee, J.Y., and Kim, M.S. 2012. Korean public opinion about foreign aid. ODA Policy 11-02,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KIEP).
- Kwon, Y., Lee, J.Y., Yoo, A.R., and Lee, G.H. 2013. Korean public opinion about foreign aid. ODA Policy 11-02,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KIEP).
- Lee, K.J. 2013. Modularization of Korea's Development Experience: Saemaul Undong and Forest Rehabilitation in Korea: Saemaul income boosting project and the role of the village forestry cooperative. *KSP School of Public Policy and Management*.
- Lummsdaine, D.H. 1993. Moral vision in international politics: The foreign aid regime, 1949-1989. Princeton University Press.
- Maizels, A. and Nissanke, M. 1984. Motivations for aid to developing countries. *World Development*: 879-900.
-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MOFAT). 2010. Korean attitude toward ODA policy and awareness raising efforts (in Korean).
-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MOFAT). 2008. Public opinion poll on development and policy research on Korean government's development cooperation policy (in Korean).
- Moon, K.Y. 2013. The study of British foreign aid policy and implementation architecture. *International Development and Cooperation Review* 5(1): 75-112.
- Moyo, D. 2009. *Dead Aid: Why aid is not working and how there Is another way for Africa*. London: Penguin Books Ltd.
- OECD DAC, 2012. Peer Review Republic of Korea
- Jung, J.S. 2010. Supporting desertification challenges in Africa: lessons for South Korea's foreign aid policy. *International Development and Cooperation Review* 2(2): 95-126.
- Rajan, R. and Subramanian, A. 2008. Aid and Growth: What does the cross-country evidence really show?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90(4): 643-665.
- Yoo, B.I. 2005. The Change of World's Forest Resources and Direction of Korea's Forest ODA Cooperation. *The Rural Economy* 28(3): 101-119.
- Yoo, B.I., Shim S.M., Yoon, B.E., Jung, S.K., and Jun, J.H. 2014a. The Status and Strategies of Forest ODA for Millenium Development Goals and Sustainable Forest Management. Korea Forest Research Institute. Research Report. No. 534. (in Korean)
- Yoo B.I., Kim C.S., Jeon J.H., Lee, H.S., Chong S.K., Yoon B.E. 2014b. 2013 Modularization of Korea's Development Experience: Forest Resource Development in Korea.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Republic of Korea, KSP School of Public Policy and Management.
- Yoon, J.Y., Park, G.S., Kim, S.B., Lee, J.W., Sung, Y.J., Lee, S.J., Park, B.H., and Jang, G.W. 2013. A Study on the direction of Korean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in forestry. *CNU Journal of Agricultural Science* 40(1): 19-26.
- Han, J.K. and Park, S.J. 2013. Analysis of perceptions of Korean development NGOs o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in Korean). Child Fund Korea.